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록(2026년 3차)		담당	사무국장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				
회의일시	2026. 5. 27.(수) 16:00 ~ 18:00		회의장소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1호		
분과명	이주민지원분과		작성자	임지혜		
참석자	총 분과원 20명 중 15명 참석(75%) ※ 전체 분과원 참석여부 O,x / 협의체 사무국 참석률 제외					
	최경식	글로벌미션센터	O	박수아	안산시선부종합사회복지관	X
	김혜리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O	이경숙	온누리M센터	X
	신호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지역협력팀	O	양금주	(사)한국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 부설 안산시 수어통역센터	X
	이현정	안산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팀	O	이소영	경기중부하나센터	X
	홍혜영	외국인주민행정과 외국인주민권익팀	O	임혜광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O
	김유진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O	최보라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O
	곽다은	안산시평생학습관	O	이재영	LEO 교육센터	O
	김보미	안산시분오종합사회복지관	O	이화영	고려인문화센터 너머	X
	김혜령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O	김문숙	엘피스의 집	O
	류수자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O	김선주	안산시부곡종합사회복지관	O
	장운실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O	추진희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O
	이유선	안산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O	임지혜	안산미래연구원	O
	배은형	안산시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O	박민수	안산미래연구원	O
안건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4. 종합 합의 사항 5. 향후 계획					
회의내용	※ 분과원 불참사유 - 안산시선부종합사회복지관 박수아 : 업무중복(기관 일정) - 온누리M센터 이경숙 : 업무중복(출장) - 안산시수어통역센터 양금주 : 업무중복(외부 일정) - 경기중부하나센터 이소영 : 업무중복(교육) - 고려인문화센터 너머 이화영 : 업무중복(센터 일정)					
	1. 제5기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분과 검토 □ I-3-4 외국인 주민 응급지원 확대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 외국인 주민 응급지원 확대 사업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주거지원, 물품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됨 · 2023~2025년 평균 달성률은 122%이고, 2025년에는 목표 18건 대비 33건을 지원하여 183%를 달성하는 등 실제 수요가 확인되었음.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인 노숙자 쉼터 부재, 정신질환 의심 노숙 외국인 등 복합 위기 사례에 대한 발굴·연계 체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됨.</li> <li>· 또한 3년간 유사한 모니터링 의견이 반복되었으나 구조적으로 예산 확대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제6기 계획상 지속사업으로 가져갈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됨.</li> </ul>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에서는 TF 검토 결과에 대체로 동의함.</li> <li>· 다만 본 사업이 사각지대 외국인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 제6기 계획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li> <li>·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장점은 주민, 민간 전문가, 담당부서가 함께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환류할 수 있다는 점임. 그러나 본 사업은 예산, 지원 기준, 국가·광역 차원의 제도 필요성 등 구조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분과 의견이 매년 반복되더라도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됨.</li> </ul>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제6기 주요 세부사업 후보로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정리함.</li> <li>· 사업 자체는 지속하되,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편성 여부는 타 사업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li> <li>· 다만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복합 위기 외국인 발굴, 경찰·종교시설·대사관·민간단체와의 협력, 국가·광역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은 후속 관심 과제로 유지함.</li> <li>· 향후 재검토할 경우 단순 지원 건수 외에 상담-발굴-지원-연계 단계별 데이터, 미지원 사유, 민간 협력 연계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함.</li> </ul>

□ I-3-8 이주민·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구분	주요 내용
TF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은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국가별 대표행사, 세계소년소녀합창단 등 안산시의 대표 다문화 통합사업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선주민·이주민 간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li> <li>· 행사 개최 목표와 예산 집행은 안정적으로 달성되었고, 이주민이 일부 행사 기획·운영 주체로 참여한 긍정적 성과도 있었음.</li> <li>· 그러나 선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시 주도성이 강해 외국인 공동체·민간단체와의 협업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며, 행사 장소가 단원구에 편중되어 상록구 등 이주민 증가 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됨.</li> <li>· 또한 일회성 행사 중심 구조로는 일상 속 통합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제시됨.</li> </ul>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에서는 TF 검토 결과에 대체로 동의함.</li> <li>· 특히 3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국가별 행사 참여 인원, 행사별 예산 사용 규모 등 구체적 성과자료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웠고, 행사 당일 참여자 수 산정이나 예산 세부 공개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됨.</li> </ul>
현장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여러 행사를 묶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개선 의견이 제시되어도 실제 환류 대상이 불명확해지는 한계가 있음.</li> <li>· 또한 선주민 입장에서는 “이 행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될 수 있어, 단순 관람형 행사보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역할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속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됨.</li> </ul>
제6기 반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은 제6기 주요 세부사업 후보로는 보류함.</li> <li>· 선주민·이주민 교류와 상호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는 제6기에서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본 사업의 제6기 계획 편성 여부는 타 사업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li> <li>· 다만 이주민 공동체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구조, 선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상록구 등 생활권 확장, 이주민·선주민 공동 활동 기반 조성은 후속 과제로 유지함.</li> </ul>

**2. 제6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사업을 단순히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성과와 한계, 모니터링 환류 가능성, 안산시의 지역 특성, 제6기 전략체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됨.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좌측 전략으로 ①인프라·문화, ②생활안전, ③복지·정신건강, ④일자리 전략이 제시되었고, 이주민지원분과는 특정 복지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화, 건강, 정신건강, 일자리, 정보 접근, 상호문화 교류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이 논의됨.

핵심 이슈	주요 내용
이주민 정책의 범위 확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협의의 복지계획이 아니므로, 이주민 영역도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문화, 상호이해, 건강, 정신건강, 일자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함.
기존 사업의 환류 가능성 중시	제6기 사업은 단순히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선정하기보다, 분과와 TF의 모니터링 의견이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일회성 행사에서 일상적 상생으로 전환	제5기 이주민·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의 한계를 고려하여, 제6기에는 일상 속 접촉, 공동활동, 생활권 단위 교류, 상호 이해를 강화하는 사업이 필요함.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체'로 재정의	이주민을 보호·지원 대상에만 머물게 하기보다, 일자리, 통역, 교육, 문화매개, 지역활동의 주체로 세우는 사업이 필요함.
정신건강과 복합위기 대응	이주민은 체류, 언어, 고용, 가족, 의료, 정서 문제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 복지 접근보다 지역기관 기반의 밀착형 접근이 필요함.

**3. 제6기 신규사업 후보 검토**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관내 기관 사업 전체 검토**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제5기 이주민 관련 기존 사업 2개가 모두 보류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제6기 계획에는 신규사업 후보 발굴이 매우 중요해짐. ·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수행하는 사업 전체와 관내 민간기관의 관련 사업을 함께 펼쳐놓고 검토한 후 후보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분과 의견	· 제5기 이주민 관련 기존 사업 2개가 보류·종결 방향으로 정리됨에 따라, 제6기 신규사업 후보 발굴을 위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사업뿐 아니라 분과 참여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에서 수행 중인 이주민 관련 사업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검토 방향	· 제2차 TF 회의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관내 기관의 이주민 관련 사업 목록을 정리하고, 사업명, 담당부서, 예산, 자원, 대상, 성과자료, 민관협력성,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가능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검토함.

**□ 세계문화체험관 등 상호문화 체험 인프라**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배경	·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사업 중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 수 등 성과자료 확인이 가능한 사업으로 세계문화체험관이 언급됨.

구분	주요 내용
분과 의견	· 세계문화체험관은 선주민이 이주민 문화와 세계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상호문화 이해와 인프라 전략과 연결될 수 있음. · 다만 민관협력성이 뚜렷한 사업인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좌측 주요사업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민관협력성,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은 명확하지 않아, 제6기 주요 세부사업 후보로 확정하기보다는 참고 후보 또는 인프라·문화 영역의 후속 검토사항으로 정리함.

**□ 다문화 학습관리사 양성 및 활동 연계**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이주배경 주민이 교육·통역·언어·문화 매개자로 성장하고,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성·연계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분과 의견	· 다문화 학습관리사 양성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처를 연계하는 구조가 소개되었음. · 이는 이주민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교육·통역·문화매개 활동의 주체로 세운다는 점에서 제6기 일자리 전략과 잘 맞는 사업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쟁점	· 해당 사업은 이주민 일자리, 지역기관 연계, 이중언어·통역 자원 활용, 지역사회 노출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음. · 또한 시 예산 7천만 원 규모가 확보되어 지속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조례상 근거를 확인하면 제6기 사업으로 포커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이주배경 주민의 사회참여와 활동 연계 측면에서 검토 가능성은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활동처 확보, 성과관리 가능성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제6기 반영 후보로 확정하기보다 참고 후보로 정리함.

**□ 이주민 정신건강·정서지원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이주민의 체류, 언어, 노동, 가족, 사회적 고립, 차별 경험 등에서 비롯되는 정신건강·정서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후보로 검토됨.
분과 의견	· 향후 제6기 계획 기간인 2027~2030년에는 이주민 정신건강 문제가 안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할 수 있으므로,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해당 분야를 담아내는 것이 의미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장 사례	· 부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주민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재단 지원을 받아 실태조사와 정서·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공유됨. · 또한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안산시 이주민 정신건강 실태 결과를 시와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
쟁점	·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정형화된 모델은 아니지만, 이주민 지원을 외국인 전문기관만이 아니라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기관이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큼. · 다만 외국인지원본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 구조가 충분히 정리되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검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의 정서·정신건강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는 개별 기관의 시범적·부분적 사업 성격이 강하고 안정적 자원과 추진체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음.</li> <li>·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제6기 반영 후보로 확정하기보다 참고 후보로 정리함.</li> </ul>

#### □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사업 취지	·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정보 제공, 일차보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후보로 검토됨.
분과 의견	· 건강관리 사업은 이주민 전반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기관·보건소 사업의 법적·제도적 한계,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관계, 실제 이용 실적과 모니터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검토 방향	·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주민 의료 접근성 측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보건의료 사업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의 관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별도 성과관리 가능성이 불명확하여 현 단계에서는 제6기 주요사업 후보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리함.

#### □ FGI 추진 방식 보완

구분	주요 내용
논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조사는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안산시의 특성인 이주민의 직접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li> <li>· 이에 실무운영부는 이주민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 FGI를 구상한 것으로 공유됨.</li> </ul>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GI는 2개 그룹으로 구상되었음. 첫 번째 그룹은 이주민 당사자 및 이주배경 학부모 4명, 두 번째 그룹은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선주민 2명과 상담·통역 실무자 2명으로 구성하여, 총 2개 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이 제시됨.</li> <li>· 핵심 주제는 일상적 교류와 상생, 정보 접근과 통번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건강·정신건강 위기, 제6기 사업계획 검증 등으로 설명됨.</li> </ul>
분과 보완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에서는 한국어가 가능한 장기거주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이나 언어·정보 접근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li> <li>· 또한 이주민 당사자와의 인터뷰는 라포 형성, 통역,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소수 인원을 모아 넓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li> </ul>
검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GI는 추후 필요시 다시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함.</li> <li>· 기존 연구자료와 현장기관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주제, 예컨대 이주민 일자리, 이주민 정신건강, 정보 접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등으로 범위를 좁혀 진행하는 것이 적절함.</li> </ul>

#### 4. 종합 합의 사항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제5기 사업	1-3-4 외국인 주민 응급지원 확대	사각지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안전망으로 필요성은 크나, 예산·제도·국가 단위 대응 문제가 커서 모니터링 환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움.	<b>보류.</b> 제6기 반영 여부는 타 사업 검토 후 판단하기로 함.

구분	사업명	분과회의 정리	제6기 반영 방향
제5기 사업	1-3-8 이주민·선주민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성과는 있으나 일회성 행사 중심이며, 선주민 참여와 일상적 상생 효과가 제한적임.	<b>보류.</b> 일상 기반 상생·교류 사업 추가 검토 후 제6기 반영 여부 판단하기로 함.
신규 후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관내 기관 사업 전체 검토	기존 2개 사업이 보류·종결 방향으로 정리됨에 따라 신규사업 후보 발굴 필요성이 있음.	<b>자료 확인.</b> 관련 기관 사업을 간략히 검토하여 제2차 TF에서 후보 여부 판단.
신규 후보	세계문화체험관 등 상호문화 체험 인프라	일반 시민 이용 가능성은 있으나, 민관협력성과 주요사업 적합성은 명확하지 않음.	<b>참고 후보.</b> 제6기 주요사업보다는 인프라·문화 영역의 후속 검토사항으로 확인.
신규 후보	다문화 학습관리사 양성 및 활동 연계	이주배경 주민의 사회참여와 활동 연계 측면에서 검토 가능성은 있으나, 지속성·활동처·성과관리 가능성 확인이 필요함.	<b>참고 후보.</b> 제6기 주요 세부사업 반영 검토.
신규 후보	이주민 정신건강·정서지원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는 안정적 재원과 추진체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b>참고 후보.</b> 제6기 주요 세부사업 반영 검토.
신규 후보	외국인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 접근성 측면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보건의료 사업과의 관계 및 별도 성과관리 가능성이 불명확함.	<b>반영 어려움.</b> 제6기 주요사업 후보에서는 제외.
조사·의견수렴	FGI 추진	이주민 의견 보완 필요성은 있으나 대상자 선정, 통역, 질문 범위, 라포 형성이 중요함.	<b>진행 중단.</b> 기존 자료 검토 후 필요 시 주제별 집중 FGI로 추진.

### 5. 향후 계획

- 본 이주민지원분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은 제2차 다문화상생팀 TF 회의에 공유하여, 제6기 지속·신규 사업 후보군 확정 및 사업별 추진 방향·성과지표 검토에 반영함.
- 분과위원 및 관계기관은 회의 이후에도 기관에서 운영 중이거나 제6기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을 경우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차기회의

- ◎ 일시 : 2026. 7. 1.(수), 16시
- ◎ 장소 : 안산시청 제3별관 대회의실
- ◎ 안건 : 제6기 신규 사업 후보군 검토, 사업별 추진 방향 및 성과지표안 논의, 전략체계도 우측 과업 영역 평가 등

### 진행사진

